

손흥민 폭풍 2도움... 무리뉴의 '스페셜 원'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폭발적인 스피드와 효과적인 도움으로 활약하며 유럽 축구 무대를 뒤흔들고 있다.

손흥민은 1일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홈 경기에 출전했다. 손흥민은 이날 골 대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5, 6호 도움을 올리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선두로 4-2-3-1 포메이션을 펼쳤으며, 손흥민은 왼쪽 날개를 맡았다.

경기 초반은 본머스가 분위기를 장악했다. 본머스는 전반 4분, 10분 아르나우트 흐루네벨트, 디에고 리코의 날카로운 중거리 슛과 전반 15분 골 지역 앞 도미니크 솔란케에게 연결된 깊은 침투 패스로 토트넘을 위협했다.

전반 19분 손흥민이 주특기인 순간 스피드로 날카로운 역습을 선보여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토트넘 페널티 지역 앞에서 본머스 공격수 흐루네벨트가 실수로 공을 흘리자, 텔리 알리가 공을 넘어 채 역습 기회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전력 질주를 시작한 손흥민은 본머스 수비수를 앞질러 순식간에 상대 페널티 지역까지

토트넘, 본머스전 3-2 승리

무리뉴 감독 부임후 3경기 연속 승

손흥민,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4골 6도움... EPL 도움 랭킹 2위

침투해 원발 슈팅을 날렸으나, 아쉽게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말았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2분여가 지난 전반 21분, 센터 서클로부터 페널티 지역으로 연결되는 긴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함께 침투한 알리에게 센터치로 공을 넘겨졌고, 알리는 가벼운 슈팅으로 골문을 열어젖혔다.

기세를 탄 토트넘은 잇따른 슈팅으로 본머스를 압도했다. 전반 26분 산체스가 골을 넣었으나, 혼전 중 공이 산체스 팔에 닿았던 것으로 밝혀져 무효가 돼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후반전에도 토트넘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선제골 당시와 같이 페널티 지역에서 긴 패스를 넘겨받

은 알리가 수비수, 골키퍼를 잇따라 제치고 슛을 쏘아넣어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활약은 후반 24분 한 차례 더 펼쳐졌다. 알리의 긴 스루 패스를 페널티 지역 왼쪽 측면까지 빠르게 달려들어 차지한 손흥민은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고, 무사 시소코가 발리슛으로 마무리해 3-0을 만들었다.

본머스는 후반 28분과 추가 시간 해리 월슨이 두차례 만회골을 넣었으나 승부를 뒤집진 못했다.

웨스트햄전에서 1골 1도움, 챔피언스리그 올림피아코스(그리스)전에서 1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이날 2도움을 추가하면서 올 시즌 총 17개(프리미어리그 4골 6도움, 챔피언스리그 5골 2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획득했다. 최근 치른 6경기에서는 빠짐없이 공격포인트를 작성해 더 눈에 띈다.

한편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치른 3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며 프리미어리그에서 5승 5무 4패로 승점 20을 기록 중이다. 이번 3연승은 토트넘의 올 시즌 정규 리그 첫 연속 기록이다. 손흥민은 3경기 모두 선발로 출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역전의 명수' 전북현대, K리그1 3연패

시즌 최종전 강원예 1-0 승...다득점서 울산 따돌리고 통산 7번째 우승컵 유상철 감독의 인천 잔류 확정...경남·부산, 5·8일 K리그2 승강 PO 격돌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극적인 뒤집기쇼로 리그 K리그1 3연패에 성공했다.

전북은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 FC와의 2019 K리그1 파이널A 38라운드 최종전에서 전반 39분에 터진 손준호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 전까지 승점 3점 차 1위를 달렸던 울산현대가 포항스틸러스와의 최종전에서 1-4로 지면서, 전북은 울산과 승점 79점으로 동률을 이뤘다. 그리고 득점에서 앞선 전북(72점)이 울산(71점)을 꺾고 '현대가(家) 우승 전쟁'의 승자가 됐다.

이 승리로 3연패를 내달린 전북은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일화가 가지고 있는 역대 최대 우승(7회) 기록과 타이도 이뤘다.

안방에서 동시에 키오프를 한 울산과 전북이 전반전까지 팽팽한 경기를 펼치면서, 후반 초반까지는 우승컵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었다.

우승컵 수성을 위해 나선 울산은 전반 26분 포

항 완월손에 먼저 골을 허용했지만 10분 뒤 나온 주니오의 시즌 19호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전반전을 1-1로 마감했다.

전북은 전반 39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진행된 프리킥 상황에서 이승기의 크로스를 손준호가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강원 골대를 갈랐다. 전북이 1-0으로 전반전을 끝냈지만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 울산에 우승컵이 돌아가는 상황.

후반 10분 전주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서 기쁨의 함성이 터졌다. 전광판에 포항이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울산이 1-2로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후 전북 선수들은 상대 진영에서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추가골 사냥에는 실패했다. 후반 29분에는 강원 김현욱의 매서운 슈팅을 골키퍼 송범근이 가까스로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동점골이 필요했던 울산에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우승 전쟁'의 추가 급격히 전북에 쏠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경태, 日골프투어 3년 6개월만에 정상

김경태(33)가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카시오 월드오픈(총상금 2억엔) 정상에 올랐다.

김경태는 1일 일본 고치현 고치 구로시오CC(파 72·733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쳤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를 친 김경태는 손노리스(남아공)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4000만엔(약 4억3000만원)을 받았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3위였던 김경태는 이날 하루에 8타를 줄여 2016년 5월 미즈노 오픈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일본 투어 정상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2010년 JGTO에서 첫 승을 따낸 김경태는 일본 투어 통산으로는 14승째를 달성했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JGTO에서 9월 박상현(36)이 후지산케이 클래식에서 우승했고 지난달 마이나비 ABC 챔피언십 황중준(27)과 헤이와 PGM 챔피언십 최호성(46)이 정상에 오르는 등 이번 대회 김경태까지 시즌 4승을 따냈다.

10월 일본오픈을 제패한 김찬(29)은 미국 국제의 교포 선수다.

JGTO는 5일 개막하는 JT컵을 끝으로 2019시즌을 마무리한다.

KIA, 홍상삼 영입

시속 150km 강속구 강점



KIA 타이거즈가 강속구 투수 홍상삼을 영입했다.

KIA는 1일 "무적 신분인 투수 홍상삼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영일초-중앙중-중앙고를 졸업하고 2008년 두산에 입단한 홍상삼은 2009년 KBO리그에 데뷔한 뒤 10시즌 동안 228경기에 출전, 25승 37홀드 11세이브 평균자책점 4.84를 기록하고 있다.

188cm의 장신인 홍상삼은 150km 넘는 강속구로 주목을 받았지만, 고질적인 제구 난조와 공황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올 시즌이 끝난 뒤 두산에서 방출됐다.

홍상삼은 조만간 KIA에 합류해 몸 상태 등을 점검받을 예정이다. 이후 KIA 코칭스태프는 논의를 통해 홍상삼의 향후 스케줄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마운드 보강을 위해 홍상삼을 불러들인 KIA는 지난달 25일에는 내야 강화를 위해 SK 내야수 나주환을 조건 없는 트레이드로 영입하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인비, 골프위크 '10년간 최고 여자 선수'

'골프 여제' 박인비(31)가 최근 10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가장 훌륭한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0년간 베스트 LPGA 투어 선수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골프위크는 박인비에 대해 "LPGA 명예의 전당 회원이며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6주간 세계 1위를 지켰다"며 "올림픽 금메달과 최근 10년 사이에 메이저 6승을 따냈으며 2013년에는 메이저 대회에서 3연승을 달성했다"고 이력을 설명했다.

박인비는 LPGA 투어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 인터넷 팬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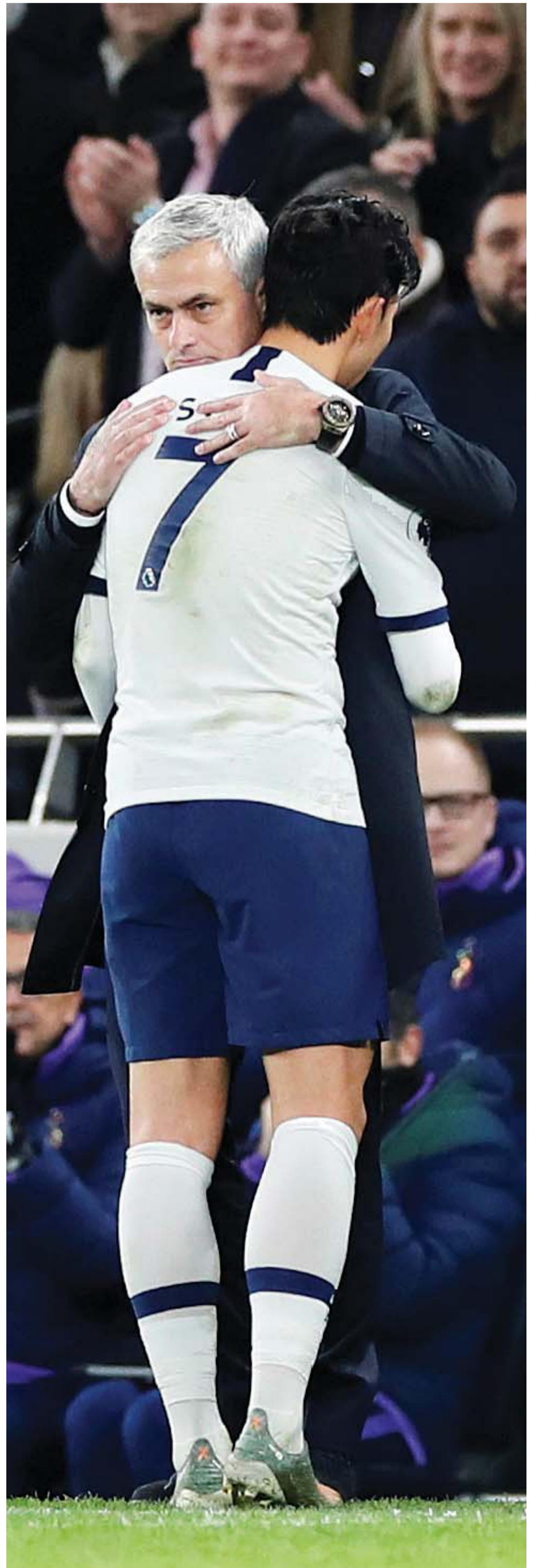
에서도 전체 톱 시드를 받았다.

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의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 선정은 후보 16명에 대한 팬 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뤄지며 2020년 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골프위크는 박인비에 이어 쟁야니(대만)를 2위에 올려놨고 리디아 고(뉴질랜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에리아 쥘리안(태국) 순으로 5위까지 지목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렉시 톰프슨(미국), 평산산(중국), 크리스티 커(미국),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브룩 헨더슨(캐나다) 순이었다.

/연합뉴스



"쏘니, 아름다운 크로스였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오른쪽)이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와 홈경기에서 2도움으로 맹활약 뒤 교체 직전 무리뉴 감독의 격려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